



하나원큐 K리그1 2019 개막전 전북현대와 대구FC의 경기가 지난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실시된 가운데 선수들이 볼을 잡기 위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전북현대, 대구FC와 무승부

프로축구 K리그1 올 시즌 공식 개막전서 1-1로 비겨... 임선영 1골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가 대구FC와의 시즌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북은 지난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19 공식 개막전에서 대구와 1-1로 비겼다. 최강희 감독과 작별한 뒤 포르투갈 출신 호세 모리이스 감독 체제로 새 출발에 나선 전북은 경기를 지배하고도 승점 3을 얻는데 실패했다. 지난 시즌 FA컵 우승팀 자격으로 전북을 상대한 대구는 원정에서 값진 승점 1을 쌓았다. 효율적인 경기 운영으로 전북 일대에서 패배를 피하면서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입증했다. 모리이스 감독은 김신욱을 최전방에 두고 한 교원과 로페즈를 공격진에 배치했다. 주장 이동국과 부주장 이용이 모두 빠지면서 홍정호가 완장을 차다. 대구는 에드가, 세징야 듀오를 중심으로 공격진을 꾸렸다. 정승원은 벤치

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수년 간 ‘낙공’으로 리그를 지배한 전북은 예상대로 공격적인 운영을 선보였다. 대다수가 하프라인을 넘어가 대구를 압박했다. 로페즈는 전반 6분 강력한 슈트로 분위기를 달궜다. 대구는 일단 수비에 무게를 뒀다. 물론 공격을 완전 등한시 한 것은 아니다. 역습 시 세징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격하며 기회를 엿보다. 침착하게 공세를 차단하던 대구는 전반 22분 선제골을 가져갔다. 세트피스에서 창출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세징야의 프리킥을 에드가가 머리로 받아넣었다. 에드가는 시즌 1호골의 주인공이 됐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전북은 6분 만에 균형을 맞췄다. 임선영의 슈트가 대구 골키퍼 조현우의 손을 지나 득점으로 연결됐다. 임선영은 대구

수비수들이 뒤로 물러서는 틈을 놓치지 않고 과감한 슈트로 골맛을 봤다. 전북은 전반 32분 최철순의 슈트 크로스바를 때리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대구 역시 전반 43분 빠른 역습에 이은 김대원의 슈트가 벗어나 리드를 잡지 못했다. 좀처럼 균형이 깨지지 않자 모리이스 감독이 먼저 움직였다. 후반 17분 김신욱 대신 주장 이동국을 투입했다. 이에 질세라 안드레 감독은 후반 18분 아껴둔 정승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구는 견고한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전북을 괴롭혔다.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후반 27분 세징야의 마무리는 전북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전북은 이적생 공격 자원인 한승규, 문선민을 차례로 투입해 막판까지 역전 기회를 엿봤지만 대구의 골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한편 이날 경기는 외국인 사랑팀들이 지라대결을 벌인 K리그 최초의 개막전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뉴시스

우레이, 스페인 라리가 첫 골... 중국인 최초

에스파뇰, 3-1로 승리

중국 축구대표팀의 공격수 우레이(28·에스파뇰)가 중국인 최초로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에서 골을 기록했다. 우레이는 지난 2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RCDE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의 2018~2019 프리메라리가 26라운드

서 선발로 출전해 2-1로 앞선 상황에서 썩기골을 터뜨렸다. 중국인 최초의 프리메라리가 득점이다. 지난해 중국 슈퍼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우레이는 올해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이 끝나고 상하이 상강(중국)을 떠나 스페인 무대에 진출했다. 에스파뇰 유니폼을 입었다. 에스파뇰은 1-1로 앞선 후반 10분 마리오 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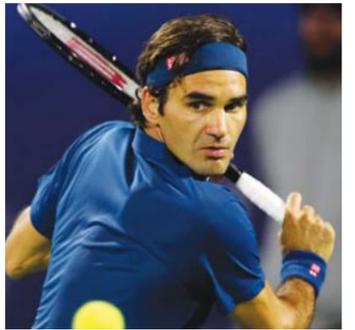


르모소의 골로 2-1로 달아났고, 후반 20분 우레이의 골로 승리를 굳혔다. 우레이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세르지 다데르의 침투패스를 받아 침착하게 오른발로 때려 골을 넣었다. 에스파뇰은 3-1로 승리하면서 9승(6무11패 승점 33)째를 신고했다. 20개 구단 중 11위에 자리했다. /뉴시스

페더러, 테니스 ATP 통산 100번째 우승

“나의 꿈 이뤄져... 아름다운 여정”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38·스위스)가 역대 2번째로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에서 통산 100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페더러는 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ATP 투어 두바이 듀티프리 챔피언십 결승에서 스테파노스 치치파스(21·그리스)에 세트스코어 2-0(6-4 6-4) 승리를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2001년 2월 말라노 인도어 대회에서 처음으로 ATP 투어 정상에 오른 페더러는 투어 역사상 2번째로 통산 100승 고지를 밟았다. 앞서 100회 이상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지미 코너스(67·미국)가 유일하다. 코너스는 은퇴할 때까지 총 109차례 정상에 섰다. 페더러는 또 치치파스를 상대로 승리해 올해 1월 호주오픈에서 당한 패배를 설욕했다.



페더러는 호주오픈 16강전에서 치치파스에 패하며 이번의 희생양이 됐다. 페더러는 “100번째 우승으로 나의 꿈이 이뤄진 순간이다. 정말 길고 아름다운 여정이었다”고 했다. /뉴시스



전북체육회는 지난달 28일 '종목단체 회계교육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북체육회, 종목단체 회계교육·사업설명회

보조금 지출과목·예산편성·집행기준 등 알아보기 쉽게 책자 배부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는 지난달 28일 '종목단체 회계교육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회계 실무 능력을 높이고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마련됐고 68개 종목단체 사무국장과 회계 실무자 등 약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교육은 ▲보조금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지출증빙서류 작성 ▲회계서식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방법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종목단체 관계자들이 사업 진행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조금 지출과목과 예산편성, 집행기준 등을 알아보기 쉽게 책으로 제작·배부했다. 이는 회계 업무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여려는 것이다. 회계교육과 함께 오는 5월 전북 일원에서 열리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서울), 제56회 전북도민체육대회(고창), 전국생활체육대축전(충북) 등 주요 대회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만큼 소년체육대회도 성황리에 치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잘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등으로 체육계가 어수선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종목단체간의 분쟁을 피하고 소통하고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이고 예산의 투명성과 경영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각종 체육정보를 빠르게 종목단체에 제공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식 기자



시민이 직접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입니다.



